

성남시민의 축제 한마당 빵 · 과자 디자인전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 열려

성남시 주최로 지난 13, 14일 이틀간 제 2회 빵 · 과자 디자인전이 성남시 울동공원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두 돌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 상공회의소가 주관했으며 대한제과협회 성남시지부와 성남제과학원 및 프랜차이즈 업체가 후원사로 나섰다.

김병량 성남시장의 개회사와 함께 시작된 이번 행사는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제빵기술 세미나 및 시연, 제과 · 제빵 디자인 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었다. 이번 빵과자 디자인전은 일반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위주로 구성되어 구경나온 많은 시민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행사’에서는 첫날 10팀, 행사 마지막날인 14일에는 20팀까지 신청을 받았다. 이 코너에서는 냉동 4각 생지를 이용해 원하는 모양의 빵을 성형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워주는 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삼삼오오 모인 가족과 연인들의 참여 열기가 후끈하게 달아올랐다.

제빵기술 세미나 및 시연은 성남제과학원과 분당제과학원에서 행사 무대를 마련했으며, 마지팬 공예와 초콜릿 만들기, 5단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데코레이션 기법이 선보였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마지팬 공예, 초콜릿, 여왕 케이크 등이 제작돼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시연에서는 박찬희 제과명장과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서승주, 김명덕씨가 행사 내내 관람객들을 위해 열연을 펼쳤다. 특히 마지팬 공예 시연 장면에서 아이들의 호기심어린 시선이 집중되어 많은 인기를 모았다. 이 밖에도 분당 제과학원 강사들이 직접 참가한 가운데 케이크

와 모닝빵 만들기 강습, 쿼즈대회 등이 수시로 열렸다.

제과 · 제빵 디자인 경연대회에서는 양과자, 쿠키, 빵 등 많은 작품이 출품되었다. 전시회장 한쪽에는 빵의 유래를 테마로 한 역사관이 마련됐으며 관람객들은 진열된 가지각색의 작품이 신기한 듯 시종일관 흥미롭게 둘러보았다.

폐회식과 함께 열린

시상식에서 케이크, 제빵, 제과, 공예 등 4개부문 27명이 입상했다. 케이크 부문은 상제르망 제과점의 최순호씨가 1등을 했으며, 제빵 부문은 끌리앙스 과자점 김영욱씨가, 제과 부문은 김건오씨가, 공예부문은 주부 참가자인 한정자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울동공원 입구에는 샤니와 파리크라상, 대한제과협회 수원시지부, 그리고 고려당이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즉석에서 구운 빵을 제공했다. 이밖에도 시연회장 주변으로 메이플 시럽을 바른 모닝빵 나눠주기 행사가 펼쳐져 호수 입구까지 긴 줄이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역사관 앞쪽으로 파리크라상에서 협찬한 초대형 10단 케이크가 전시돼 지켜보는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



▲ 이번 행사를 마련한 베이커리업계 및 성남시 관계인사의 개회식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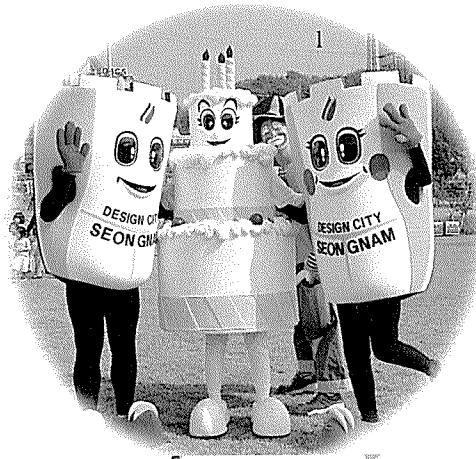
다. 이밖에도 빼어로 풍선데코, 팡팡다트, 팡팡 열기구 등 상설 이벤트 행사가 이어졌다. 커다란 열기구가 하늘로 두둥실 떠오르자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다. 그러나 팡팡다트는 행사내용이 소홀한 탓에 참여도가 현저히 낮았다.

한편 성남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인 디돌이와 디순이, 그리고 케이크 모양의 캐릭터 인형이 깜찍한 외모를 뽐내며 행사장을 찾은 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또한 행

사 주최측은 팡팡 방명록인 '나도 한마디 코너'를 마련해 성남 시민들이 축제에 참가한 소감을 적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썼다.

가을의 절정기인 10월 중순에 열린 이번 행사는 제과제빵의 디자인적 요소가 강조된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민의 축제의 장으로 한층 위상을 높인 이번 대회는 시민들이 빵을 보고 익히며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취재 / 임희정 lim@bakery.co.kr>

- ① 제 2회 빵과자 디자인전을 빛낸 숨은 주역 디돌이와 디순이, 케이크 캐릭터.
 - ② 전시회장을 방문한 관련 인사들이 행사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 ③ 유명강사의 '마지팬 만들기' 행사장.
- 이번 빵·과자 디자인전에서 인기가 높았던 코너이다.



- ④ 파리크라상이 협찬한 높이 10단의 초대형 케이크.
- ⑤ 레몬커드를 바른 모닝빵 시식대 뒤편으로 한 줄로 늘어선 사람들.

